

현대글로비스, 수소·페배터리 사업 뛰어든다

수소·배터리 등 지속가능 사업 영역 확대
수소 생산부터 공급까지 밸류체인 구축
해의 그린수소 유통·개발 프로젝트 진행
사용한 배터리 운반 '플랫폼 용기' 개발

현대글로비스가 수소와 전기차(EV) 배터리 등 친환경 신사업 브랜드를 선보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이슈로 떠오른 만큼 견고한 물류·유통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포괄적인 사업자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각오다.

현대글로비스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브랜드 명칭은 '에코(ECOH)'다. 에코는 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사람을 뜻하는 '휴먼(HUMAN)'의 합성어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소유통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에서 'ECOH'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소사업은 '에코(ECOH)'에 물류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더한 '에코 로지스틱스(ECOH Logistics)' 또는 '에코 스테이션(ECOH Station)'을,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저장을 뜻하는 영단어를 합쳐 '에코 스토리지(ECOH Storage)'를 브랜드 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소 밸류 체인 전 영역에서 최적 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공급망관리(SCM) 전문 기업의 특성을 살려 수소의 생산·저장·운송·공급 등 전 영역에서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며, 수소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수소 유통과 인프라 운영 사업을 지속 확대해 2030년까지 수소출하센터 9곳으로 늘리고, 전국에 총 360곳 이상의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오세아니아와 중동 등 해외의 그린수소 유통 및 관련 인프라 운영사, 국내 그린 수소 수요처 독자 개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글로벌 암모니아 생산회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현대글로비스가 수소와 전기차(EV) 배터리 등 친환경 신사업 브랜드를 선보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섰다. 현대글로비스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브랜드 'ECOH'를 적용한 수소 운반 트럭 가상 이미지. 사진제공 | 현대글로비스

암모니아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수소 저장·운송 매체로 꼽힌다. 수소의 운송과 저장을 위해서는 기체 상태의 수소를 액체로 바꿔야 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암모니아다.

수소에 질소를 결합시키면 암모니아가 되는데,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비교적 쉽게 액화하며 단위 부피당 수소를 1.7배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 대량 운송에 용이하다. 암모니아 형태로 해상 운송을 하고 수요처에 도착하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그린수소 운반은 2024년 건조예정인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2척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물량 확대 시 추가 선박 건조도 검토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액화수소 저장·운송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글로벌 수소전문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2024년경 액화수소 생산·유통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고압의 기체상태인 수소를 액화시켜 운송하는 방식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일부 기업들이 액화수소 유통사업에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2022년부터 시행되는 수소공급의무화제도(HPS)에 발맞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구축사업과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판매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친환경 사업의 또 다른 축으로 삼았다. 현재 진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실증사업에 이어 향후 V2G(Vehicle to Grid·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유휴 전력을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에 대한 실증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올해를 기점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통상 사용 주기(7~10년)가 지나는 2028년 이후 폐배터리가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형태와 상관없이 운반할 수 있는 '플랫폼 용기'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 현대글로비스가 특허를 받은 '플랫폼 용기'는 절연 소재를 채택해 누전을 예방할 수 있고, 조절형 고정 장치가 있어 다양한 크기의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도 저장 용량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UBESS(Use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사업도 구상중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포스코·쌍용C&E, 탄소배출저감 맞춘 '탄소배출 감축 및 ESG경영 협력 MOU'

포스코와 쌍용 C&E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제철부산물 사용 확대 및 이를 활용한 친환경 시멘트 개발에 나선다.

포스코와 쌍용C&E는 5일 서울중구 쌍용C&E본사에서 '탄소배출 감축 및 ESG경영협력 MOU'를 체결(사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준현 쌍용C&E 전무와 김대업 포스코 열연선재마케팅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시멘트 생산공정에 제철부산물인 수재슬래그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시멘트 개발 및 수요 기반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시멘트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나아가 철강 및 시멘트 산업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1톤 생산 시 석회석의 열분해와 이를 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약 0.8톤의 탄소가 발생한다. 포스코가 공급하는 수재슬래그는 용광로에서 쇳물과 함께 배출되는 부산물을 모아 물을 이용해 급랭한 것으로 시멘트와 성분이 유사하다.

그동안 시멘트 업계는 수재슬래그 등 제철부산물을 첨가하면 그만큼 석회석 사용량이 줄어들어 원가절감과 함께 탄소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건설 비수기 등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 저장공간과 활용 방안이 여의치 않았으며, 제철소도 시멘트 업계 비수기에는 부산물 처리에 고심을 하고 있어 서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쌍용C&E는 건설 비수기에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수재슬래그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야드를 확보하고, 포스코는 수재슬래그 생산 확대 및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수재슬래그 및 기타 제철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시멘트도 개발하기로 했다.

GS칼텍스, 이케아와 손잡고 주유소 물류 거점 사업 나서

주유소에 이케아 '픽업 서비스' 오픈
주유소 기반 다양한 신사업 지속 발굴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5일 이케아 코리아와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로주유소에서 국내 최초로 이케아 '주유소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유소를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는 픽업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구매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배송 형태다. 이케아 고객이 거주지 인근 GS칼텍스 주유소를 배송지로 선택하면 이케아가 지

정된 주유소에 상품을 배송하고 고객은 주유소에 방문해 직접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케아 가구 상품의 특성상 큰 부피와 무게로 인해 높은 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고객들은 픽업 서비스 해당 규격 상품에 대해 기존 배송비(근거리 2만9000원, 그 외 4만9000원) 보다 낮은 가격인 1만9000원에 배송 받을 수 있다. 비대면 가구 배송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이번 삼성로주유소의 픽업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평택, 천안, 대전, 대구, 창원을 포함한 전국 6개 주유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 반응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서비스 제공 주유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유형 창고 픽업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

또한, GS칼텍스는 이케아 뿐만 아니라 도심의 소형 물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기업들과 협업하여 물류 공간을 임대하거나 부분적 물류 프로세스를 대행하는 공유형 창고(Shared Warehouse) 컨셉의 픽업 포인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가 협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품이 고객에게 최종 배송되는 마지막 과정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를 위한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주유소는 물류 차량 진입 및 적재 공간에 강점이 있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물류 거점



GS칼텍스가 이케아 코리아와 함께 국내 최초로 이케아 '주유소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다. GS칼텍스 삼성로주유소 픽업 서비스 공간. 사진제공 | GS칼텍스

화에 적합하다"며 "미래형 주유소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물류 거점 사업을 비롯해 주유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0월 6일(수) 음력: 9월 1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체제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책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때를 기다리고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주변의 변동에 대처하여 자제심을 가지고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머리를 쓰면 이루어진다. 움직이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 는 날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가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는 태도로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쏟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의 날씨 6일(수)

서울	60/60	인천	60/60	춘천	80/70
	19 21		19 22		17 19
강릉	80/80	대전	20/20	전주	0/20
	17 19		20 26		19 28
광주	0/0	대구	20/30	부산	30/30
	18 29		19 23		20 27
창원	10/20	제주	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0 26		21 27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7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